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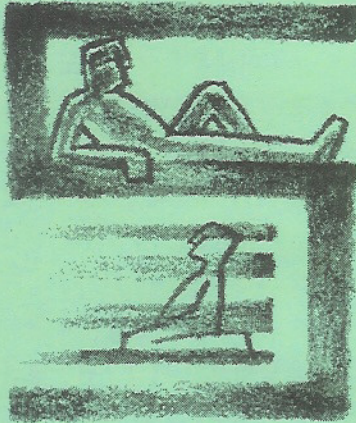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
제27권 40호 (다해) 2007·9·2

[묵상]



낮은 자리

사람 사는 세상은 무릇 둘 이상이 모여서

또 하나의 정점을 만들며 살아가게 마련이지.

섬김을 받으려면 낮은 데로 물처럼 흘러내려

피로써 섬기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참세상이지.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의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호, 김철웅 베드로 하분옥 마리아, 김중돈 스테파노
주 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김인영 베드로, 황보금 마리아 박요셉, 이마리아, 김세실리아, 존 리,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명수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생)구영애, 김석기 스테파노, 이종민 요셉, 이금자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김중훈 마태오와 최수복 클라라, 박형두 제이콥, 이설비아, 박요셉, 김경원 박재훈 제임스와 박토니 가정, 윤결 바르톨로메오 윤석환 아우구스틴, 이요셉, 이복내 마사, 이경웅 야고보 민봉식 야고보, 정완석 베드로, 민마르코, 이윤조 클라라 임현기 마르코, 최성자 카타리나, 이영목 안드레아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17-18,20,28-29

화답송 ㉠하느님은 자비로이 없는 이의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전례성가 88, 연중제22주일 C해>
○의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다만 즐기고 즐기나니,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야훼시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느님이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시로다. 하느님은 외로운
이에게 집을 마련하시고, 사로잡힌 몸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나니.㉠
○하느님이 당신 산업에 넉넉한 비를 내리시어
강마른 그 땅에 생기를 돌구셨나이다. 당신의
양떼가 그 안에 살았으니 하느님은 자비로이 없는
이의 땅을 마련하셨나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18-19,22-24ㄱ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 음 루카(Luke) 14,1,7-14

영성체송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3	343
봉헌	269	269,257
성체	303	292,283
파견	345	345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위배되는 악의 유혹, 미신적인 모든 행위, 운명론
이나 점술을 따르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과감히 끊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 재물이거나 권력, 또는 인간이었다
면 이제부터는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3. 한국 천주교회

어와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 집안에는 어른있고
나라에는 임금있네 / 내몸에는 영혼있고 하늘에는 천주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 이내몸은 죽어져도 영혼남아 무궁하리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 천주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 하지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점점 쌓인다네 / 죄짓고서 두려운자
천주없다 시비마소 / 아비없는 자식됐나 양지없는 음지있나
임금용안 못되었다 나라백성 아니런가 / 천당지옥 가보았나
세상사람 시비마소 / 있는천당 모른선비 천당없다 어이아노
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 영원무궁 영광일세
영원무궁 영광일세 / (천주공경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
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
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
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지지 말고 남
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
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필리피 2,1-5)

▶천주교(가톨릭교회)의 시작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법통을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기 30년 경,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조
기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열성적인 선교 활동으로 시리아, 그리
스, 로마 등지로 신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천주교는 황제 숭배
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
들에게 300여 년 가까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신앙
을 지켜 마침내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곧이어 로마 제국
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서구 문화와 문명의 정신적, 사상
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 학문과 예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
니다.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애 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
늘날 전 세계에는 약 12억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같은 믿음 안에
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BCK 계몽 <계속>

내 마음과 태도에 예수님의 자리

지하철을 탈 때 가끔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차레로 줄에 서 있다가 지하철의 문이 열리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뒷사람들이 앞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옵니다. 또 건널목에서 파란 불을 기다리다보면 건널목 바로 옆 횡단보도에서 관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자리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자리,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우성인가 봅니다.

자리는 그 사람의 체면과 역할을,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그리고 때로는 이해관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가 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루카 복음(14,1.7-14)에서 자리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 자리를 내어 드리게 할 지도 모른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고 말씀하십니다(루카 14,8-10).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청하는 장면이 마르코 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두 제자는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자리 때문에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꼭대기는 단 한 사람만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또한 무게중심이 불안정하기에 쓰러질 위험성도 큼니다.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정상의 자리는 완성이 아니라 전환점, 받을 왔다는 표지라고 합니다. 내려올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자리, 낮은 자리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붐벼서 함께 어울리기에 인간다움이 배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관한 가르침은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춘은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삶의 터에서 내 마음과 태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실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에도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이며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정원순 토마스 데 아퀴노 수사 신부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치아	이진향 아녜스	최숙 클라라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델	주일학교 엘리스 정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해정 율리아나	주일학교 린다 정
제물봉헌자			P.V. 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 헌금(매월 첫째주일)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5,856단 ☞ 총 합계: 182,280단

9월

◆ 성시간: 9월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하버/카슨 구역
◆ 병자영성채: 9월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주님을 향해 불타는 신앙을 증거했던 한국순교자들을 높이 드러내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우리본당 주최로 열립니다. 많이 참여하여 선조들의 뜻을 기립니다.

- 일시: 9월30일(주일) 오전 11시, 성당
- 1부: 현양미사
- 2부: 성극 소명 공연(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생애)
출연: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원과 기도회원들
- 협찬: 한국순교자복자 수녀회 및 외부회
- ☎ 김충섭 마틴 총무 213-820-7636

◆ Saint Margaret Mary 본당 로미타 축제

- 9월7일(금)~9일(주일), 25511 Eshelman Ave, Lomita
- 게임, 다민족 음식, Rides, Live Entertainment & 맥주 코너
- Raffle 티켓 판매: 1장당 \$1 ☎ 310-740-1502 김요한

◆ 백삼위 한국학교 개학

- 9월9일(주일) 낮12시, 2층교실.
- 문의: 이혜레나 교장 ☎ 310-347-8765

◆ 목요 교리반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실

◆ 자모회 모임

- 9월9일(주일) 오후 1시, 전교장 뒷뜰 ☎ 371-8636

◆ 백삼위 골프회 9월 정기 토너먼트

- 9월8일(토) 오전10시, Lakewood Country Club
- 문의: 최기남 야고보 골프회장 ☎ 310-569-3940
- 이크리스 아가톤 형제께서 상품 5점을 기증했습니다.

◆ 제59차 M.E. 첫 주말: 9월7일(금)~9일(주일)

- 참가부부: 이상윤 프란치스코 & 해령 아그네스
김상근 바오로 & 여희 마리안느
최진수 에우세비오 & 정숙 델피나
김근주 토마스 아퀴나스 & 종숙 막달레나
- 환영식: 9일(주일) 오후 6시, 강당

◆ 노숙자 도울 봉사자 찾습니다.

- Homeless People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동참할 형제 자매님들을 기다립니다.
- ☎ 283-5879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홍룡 요셉

◆ 김종돈 스테파노 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8월31일 장례미사를 드리고 홀리크로스 세미터리에 안장되었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 고 이명수 마리아 님을 위한 연도

- 9월2일(오늘주일) 오후1시, 성당
- 유성혜 도미니카의 모친.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시작했습니다

- 등록기간: 9월23일(주일)까지
- 대상: 유치부(K)~12학년
- 등록비: 첫째아이 \$100, 둘째아이 \$80,
셋째아이 \$60, 넷째/다섯째는 무료
- 등록장소/시간: 성전 동쪽 입구, 미사전, 후

◆ 주일학교 교사 연수 및 워크샵

- 연수: 9월 15일(토) 오전 9시30분~12시, 강당
강사 김알레스 신부(토마스성당 본당신부)
청년회와 자모회, 한국학교와 함께하는 모임.
- 워크샵: 9월 15일(토) 오후 1시, 강당
- 문의: 김순희 모니카 ☎ 310-850-625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인모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대우
	김미경	김인열	김정희	김철민	박광자	박선희
	박순자	박인식	박재철	박종열	신순철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오진	윤희동	이병우	이인석
	임한나	지경수	채양석	천광락	최진수	최희태
	한혁수	제이콥박				
합계: \$ 3,540						
미사헌금: \$2,681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대우	김미경
	김인열	김정희	김철민	박광자	박선희	박순자
	박인식	박재철	박종열	신순철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윤희동	이병우	이인석	임한나	지경수
	채양석	천광락	최진수	최희태	한혁수	
	제이콥박					
합계: \$ 2,480						
감사헌금: 천남숙						

공지 사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세미나

- 9월9일(주일) 오후 1시 강당에서 있습니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권순길 체칠리아 소공동체 부장 ☎ 365-2183

◆ 사목협의회 친선 야유회

- 9월3일(월) 필렌 소재 최시몬씨 농장에서 베풀어지는 풍성한 바비큐 잔치에 교우 누구나 초대합니다.
- 오전 9시까지 본당 주차장에 모여 카풀로 떠납니다.
☎ 사목협의회 총회장 오세원 310-569-0482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9월 2일: 소공동체 (김밥 \$3.50 떡\$4)
- 9월9일: 토런스 동 1반 (카레라이스 \$3)

남가주 소식

◆ 마호니 추기경 집전 노동절 미사

- 9월3일(월) 오전10시, LA주교좌성당 (555 W. Temple St.)
- 노동자의 단결권, 이민가정을 위한 신분 합법화 및 고등교육, 의료보험, 저렴한 주택 문제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강조.
- 문의: LA대교구 정의 평화 사무국 ☎ 213-637-7690
민족학교 이민자 권익담당 김용호 ☎ 32937-3718

◆ 류해욱 신부(예수회) '복음 묵상 안내' 특강

- 9월8일(토) 오후8시,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회관 (2625 S. Vermont Av. LA ☎ 323-731-4433)

◆ 꽃동네 제 2차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피정

-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 9월 7일(금)~9일(주일), 대상: 60세 이상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Kkottongnae 37885 Hwy. 79S. Temecula, CA
- 참가비: \$100
- 신청문의 ☎ 951-302-3400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장터 행사 & 골프대회

- 한국의 날 장터행사에 골롬반 부스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 9월13일(목)~16일(주일)
- 서울 국제공원(올림픽+아드모어)
-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9월29일
다우니 리오혼도 골프클럽, ☎ 213-389-4612

이번 주 단체 모임

레이버데이 연휴

다음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체칠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변혜경 올리아나 787-7493 9/7(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래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래 스킨라스티카 782-1025 9/7(금), 오후 7시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김지희 체칠리아 539-3396 9/20(목) 오후 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시몬, 김철수 320-2425 9/15 오후 7시, 성당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오호순 모니카 213-633-3366 9/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세종 그레고리오 373-5662 9/14(금) 오후 8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이경수 헬레나 530-0357 9/11(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임형미 사비나 325-681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9/14(금) 오후 7시, 성당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9/29(토), 오후 6시, 리돈도 비치 H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서창호 바오로 257-1784 9/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베드로& 요세피나 997-9006 9/14(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아나스타시아 544-9460 9/14(금) 오후 7시 30분
	3	윤은정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9/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9/14(금) 오후 7시30분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약

‘ 유교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미덕 하나는 중용이다. 중용은 곧 극단 또는 충돌하는 모든 결정에서 중간의 방법이나 태도를 취하는 신중한 실행 및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은 공간적으로 양끝 어느 쪽에도 편향하지 않는 것이고, 용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일정불변함을 뜻한다. 그래서 중용은 매사를 처리할 때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는 불편불의하거나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무과불급의 방법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중용을 희구하는 정신은 유가에서 전인간적인 인격의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기본요소가 되기도 하고, 도덕적 수양의 최고수준을 상징하기도 했다. 중용의 덕은 끊임없는 자기감정의 절제와 선부른 행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용의 덕이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편을 만들어 갈라서고, 한번 갈라서면 지나치게 기울고 치우쳐 상대방을 근거 없이 반대하며, 한편만 보고 다른 한편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간다.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모자란다고 싶으면 남의 것을 넘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해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드는 우리가 되어간다. 일등이 아니면 안 되고, 최고와 일류가 돼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남보다 늘 앞서가야 하고, 남의 밥이 되었다간 큰일 나는 줄 알며, 줄면 죽는다는 말까지들 한다. 남을 던거나 밟고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대인관계도 이런 방식으로 성립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보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우리가 되어간다.

예수님은 유교가 가르치는 중용의 미덕보다 우리의 관행을 뒤엎는 역설의 가르침을 주신다. 서로 남의 밥이 되라 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윗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가 앉으라고 하신다. 회당에서 윗자리를 다투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이 사람들은 물론 윗자리를 다투는 제자들까지도 싸잡아 나무라시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여질 것이라고 하셨다. 구약성경에도 하느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고 했다. (잠언 3,34; 18,12)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약이다. 라틴어의 겸손(humilitas)이라는 단어가 흙(humus)에서 나온 이유가 그것이다. 노자도 겸손을 물에 비유하여, 물은 한 번도 높이 가려하지 않으며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대로 자신을 배운다고 했다.

사랑과 희생, 겸손과 겸양은 참으로 좋은 덕이다. 누구든 이런 덕을 한번이라도 행한 사람은 그 놀라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랑과 희생, 겸손과 겸양은 사람을 결코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특히 하느님 앞에서의 이런 덕행은 오히려 자유를 선물로 받는다.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여는 것이다. 사랑과 겸손은 의기소침도 아니고 자의식에 대한 결핍도 아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의 기쁨이다. 이는 곧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에 대한 기쁨이다. 사랑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나보다 너를 먼저 찾고, 너보다 하느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다.

오늘날 중용의 미덕이 점차 사라져가고, 거의 모든 대인관계가 이해득실의 계산에 기초하여 성립되며, 하물며 사랑과 희생, 겸손과 겸양의 덕행이 소수 특정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 아픈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날만큼이라도 교만과 허기진 이해득실의 가면을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웃을 만났으면 좋겠다.